

치아가 부러지고 빠지는

영유아 치아 외상



선치과병원(소아치과) - 정해경 전문의

소아청소년들은 충치예방과 충치치료 외에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외력으로 인하여 입안이 찢어지거나,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등의 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집 안을 기어서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이를 부딪힐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가구에 부딪혀 이가 부러지거나 뿌리까지 뽑히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인과는 다르게 치료에 앞서 고려할 것이 많고 치료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아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어린 나이에 앞니를 상실하면 얼굴뼈 성장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치아외상 사고 직후 대처방법

1. 치아가 통째로 빠져버린 경우

- 치아 뿌리 부분을 최대한 보존한 채로 치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 치아를 우유나 생리 식염수에 담아 최대한 빨리 내원합니다.
- 만약 치아가 더럽다면 흐르는 찬물에 최대 10초간 씻어 본래 위치에 다시 심고 손수건 등을 물려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2. 영구치의 머리 부분이 부러진 경우

- 떨어져 나간 치아 조각을 찾아 치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가급적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넣어 내원하도록 하며 보존된 상태의 치아 조각을 다시 부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1. 치아의 뿌리가 잘 보존된 경우

- 빠진 치아를 다시 제자리로 넣어주는 치아재식술을 통해 치아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빠진 치아가 유치라면 영구치가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공간 유지장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치아의 뿌리가 손상된 경우

- 치아가 깨지거나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면 치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 또한 치아가 탈락된지 장시간이 경과하거나 오염이 된 경우에도 치아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